

95.10.22

결혼적령 성비 2010년엔 128

남아선호로 불균형 심화...인구 2020년 5천1백만 최고

남아선호 의식 등으로 90년 현재 110.2로 심한 불균형을 보인 결혼적령인구(남자 27~30살, 여자 24~27살)의 성비가 오는 2010년에는 128.0으로 최고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. 즉 2010년에는 결혼

적령 여성 1백명당 남자 28명이 남아들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.

이같은 분석과 전망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(원장 연하청) 문현상·장영식·김유경 연구위원이 21일 발표한 <출산을

예측과 인구구조 안정을 위한 적정출산수준>이란 공동연구보고서에서 나왔다.

현재의 출산수준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인구는 2020년께 약 5천1백만명 수준에서 최고에 도달하며 그 이후에는 감소하기 시작한다. 또 90년 현재 2백14만4천명이던 65살 이상의 노령인구는 2040년까지는 계속 증가세를 나타내 2020년 6백33만3천명, 2040년에는 90년의 약 5.3배인 1천83만명에 이르게 된다.